

범죄현상에 관한 사회생태학적 접근 : 지역요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박성훈** · 김준호***

국 | 문 | 요 | 약

이 연구는 한국의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현상을 지역수준에서 설명하기 위해 지역요인 간의 인과관계 모형을 제시하고, 사회경제수준에 따라 지역요인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지역요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에서 수집한 2008년 범죄피해조사(KCVS)를 이용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였다. 지역요인 간의 관계는 다양한 사회생태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사회경제수준, 주거불안정성, 아파트거주비율 과 같은 지역적 특성이 지역통제요인 및 지역무질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범죄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로 지역요인 간 인과모형은 개인범죄피해는 잘 설명하지 못하는 반면, 가구범죄피해는 어느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주민결속력 및 주민 참여정도와 같은 지역통제요인은 주거불안성과 관련이 있는 반면, 사회경제수준과는 뚜렷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로 사회경제수준에 따라 지역요인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를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수준이 높은 지역보다는 사회경제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지역요 인의 영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수준의 범죄현상이 다양한 지역요인에 의해 설명되어야 함은 물론 사회생태학적 관점이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 주제어 : 범죄피해, 사회해체이론, 집합효능감, 무질서, 아파트주거문화, 다집단분석

* 이 논문은 2011년 후기사회학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토론을 맡아주었던 경 찰대학교의 박정선 교수를 비롯해 유용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준 익명의 논평자들에게도 지면을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교신저자, ngokr0102@kic.re.kr)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I. 서론

한국의 도시지역에서 ‘좋은 동네’란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일까? 학생들을 우수한 상급학교로 많이 진학시키는 유명학교와 학원이 모여 있는 곳일까? 고가의 아파트가 즐비하게 들어서 있고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일까? 아니면 생태친화적인 환경에 둘러싸여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있는 곳일까? 그러나 아무리 매력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춘 동네라고 하더라도 그곳이 범죄가 만연한 지역이라면 좋은 동네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도시지역에서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적 조건은 무엇이며, 그러한 지역적 조건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다양한 범죄현상 중에서도 범죄피해에 주목하는 이유는 범죄피해현상이 갖는 몇 가지 중요한 함의 때문이다. 사실 범죄와 관련하여 대다수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잠재적 피해자일 가능성이 크다. 바꾸어 말하면, 일반시민이 범죄와 관련하여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것은 자신과 가족이 범죄피해로부터 얼마나 안전한가이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는 범죄학이론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전통적으로 범죄학이론은 주로 가해자의 범죄동기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으나(김준호·박현수·박성훈, 2010), 범죄는 가해자만 존재한다고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다. 반드시 범행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가 존재해야만 범죄는 성립한다(Felson and Boba, 2010). 따라서 범죄학이론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범죄발생의 원인은 물론 범죄피해의 과정까지 고려한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범죄피해가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한 습관이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우발적 현상이 아니라 범죄피해 역시 다양한 사회적 조건에 따른 결과로 나타나는 체계적 현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달리 말해서, 개인의 행위는 사회적 조건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 행위로 인한 결과는 사회구조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비록 개인의 부주

의한 생활습관이 범죄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서로 다른 두 사람의 동일한 행동(예를 들어, 늦은 귀가나 장기간 집 비움)이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Miethe and Meier, 1994; Bunge, 2006; 박성훈, 2011a).

그러면 범죄현상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회적 조건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을까? 여러 사회적 조건 중에서도 ‘공간’은 범죄현상을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범죄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공간적 관점을 취한다는 것은 곧 지역의 특성이나 환경이 범죄발생(혹은 범죄피해)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은 범죄현상을 사회생태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회해체이론은 사회해체가 지역사회의 범죄나 일탈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이해되는 동시에 범죄나 일탈이 지역사회가 해체된 증거로 다시 설명되는 동어반복(tautology)의 문제로 인해 상당 기간 학문적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으나(Liska and Messner, 1999: 60), 일군의 학자들이 사회해체이론의 비논리성과 방법론적인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세련된 이론으로 발전시켰다(Bursik, 1988; Sampson and Groves, 1989; Bursik and Grasmick, 1993; Sampson, Morenoff and Gannon-Rowley, 2002; Kubrin and Weitzer, 2003). 특히 최근에는 사회해체가 단순히 범죄발생의 직접적 원인으로 설명되기보다는 지역의 맥락(context)에 따라 사회해체로 인한 결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를 검증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국내외에서 수행되고 있다(Sampson, Raudenbush and Earls, 1997; Markowitz and Felson, 1998; Patillo, 1998; 이성식, 1998; Sampson and Raudenbush, 1999; Harcourt, 2001; Markowitz, Bellair, Liska and Liu, 2001; Morenoff, Sampson and Raudenbush, 2001; 이성식, 2003; 정진성·박현호, 2010; 정진성·황의갑, 2010).

이러한 논의의 틀 속에서 이 연구는 한국의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를 개인수준이 아닌 지역수준에서 분석하고자 하며, 특히 지역수준에서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 선행연구를 검토해 볼 때, 범죄현상과 관련이 있는 지역요인의 영향력은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될 수 없으며, 지역요인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검증함으로써 범죄현

상을 보다 역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연구는 한국의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를 지역수준에서 설명하기 위해 지역요인 간의 인과관계 모형을 제시하고, 지역의 사회경제수준에 따라 범죄피해와 관련이 있는 지역요인의 영향력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2008년 범죄피해조사(KCVS)’를 이용하여 경험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II. 이론적 논의

1. 사회해체이론의 비판과 수정

사회해체이론은 20세기 초 미국 시카고 지역의 범죄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으로 범죄발생의 원인을 개인적 속성보다 지역의 구조적 특성에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범죄학이론 분야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Lilly, Cullen and Ball, 2007). 사회해체이론은 핵심개념의 불분명한 정의와 방법론적 한계로 인해 신랄한 비판을 받았으나(Lander, 1954; Pfohl, 1985), 버식과 그라스미크(Bursik, 1988; Bursik and Grasmick, 1993)이 사회해체이론을 새롭게 재조명하면서 거시적 관점에서 범죄현상을 연구하는 중요한 이론으로 다시금 각광을 받게 되었다.

사회생태학적 관점의 연구자들은 초창기 사회해체이론에 대한 연구가 주로 공식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되었다는 한계를 인식하여 영국범죄조사(BCS)나 전미범죄피해조사(NCVS)에서 수집된¹⁾ 지역유대나 연결망의 정도를 비공식 사회통제(informal social control)의 중요한 자원으로 개념화를 하였다(Simcha-Fagan and Schwartz, 1986; Sampson and Wooldredge, 1987; Sampson and Groves, 1989; Smith and Jarjoura, 1989; Sampson and Lauritsen, 1990). 이른바 ‘수정된’ 사회해

1) 초창기 사회해체이론을 보다 세련되게 수정한 학자들은 경험적 검증을 위한 종속변인으로 청소년비행이 아닌 범죄피해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적어도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들의 주장이 상당부분 뒷받침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Bursik, 1988; Bursik and Grasmick, 1993; Hancock, 2001: 73)

체이론은 지역 내 통합의 정도가 범죄에 대한 통제력으로 작용하여 범죄발생을 억제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입장은 지역의 낮은 경제수준과 불안정에 따른 결과, 즉 범죄나 비행처럼 부정적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사회적 과정에 주목한다. 버식과 그라스믹(Bursik and Grasmick, 1993: 34-38)은 지역의 사회통제가 여러 사회제도(가족, 학교, 종교기관, 정치집단)와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지역마다 범죄통제의 수준이 다른 이유는 지역 구성원 간의 사회결속력은 물론 외부의 자원을 끌어와 지역사회의 능력으로 활용하는 지역리더의 역량(정책 이슈화)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발생하는 연결망의 차이 때문이다. 버식과 그라스믹은 그들의 이론을 ‘체계모델(systemic model)’이라고 하였다. 체계모델에서는 이처럼 지역주민 간의 관계적 연결망(relational networks), 즉 지역의 유대를 매우 중요시한다. 체계모델은 빈곤, 이질적인 인종구성, 잦은 주거이동과 같은 지역의 구조적 특성이 관계적 연결망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의 관계적 연결망은 다시 다양한 종류의 사회통제²⁾에 영향을 끼쳐 해당지역의 범죄수준을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었다. 즉 사회적 유대가 반드시 모든 지역에서 사회통제를 높여 범죄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에서는 주민들 간의 친밀한 유대관계가 그 지역의 범죄자를 용인하거나 도움을 제공하는 데 이용됨으로써 오히려 범죄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연결망이 배태된 맥락에 따라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는 서더랜드(Edwin Sutherland)의 표현대로 ‘범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연결망이 일종의 범죄자본(criminal capital)으로 작용하여 반규범적 문화를 전수하고 확산시키는 데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Hagan and McCarthy, 1997; 신동준, 2010: 109). 실제로 몇몇 연구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는 법을 위

2) 지역의 사회통제는 세 가지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개인적(private) 통제는 가장 기본적인 통제로서 가족, 친구, 친지 등 친밀한 비공식 집단을 근간으로 하는 통제를 말한다. 소집단 내에서 사회통제는 사회적 지지, 자부심 증진, 우울감에서의 탈피 등을 제공하며, 어른보다는 청소년에게 보다 효과적이다. 둘째로 교구적(parochial) 통제는 보다 확대된 대인 연결망과 학교, 교회, 자발적 조직 등 지역의 사회제도를 통해 나타난다. 이차적 통제는 지역의 비공식 통제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셋째로 공식적(public) 통제는 지역외부의 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를 지키고 유지하는 지역사회 역량을 의미한다. 이러한 외부자원은 범죄예방을 위한 자발적 조직을 구성하여 지방정부로부터 재정 및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지역의 경찰조직과 공동의 목표를 통해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가능하다(Bursik and Grasmick, 1993: 16-18).

반하는 범죄자의 연결망과 법을 준수하는 지역의 연결망이 상당히 중첩되어 있고 극빈층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죄나 폭력을 용인하는 태도가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다(Markowitz and Felson, 1998; Patillo, 1998; Anderson, 1999; Browning, Fienberg and Dietz, 2004).

이러한 반론은 지역유대나 사회적 연결망이 반드시 해당지역의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통제기제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회해체이론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사회적 결속과 범죄현상 간의 관계를 새롭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 샘슨과 동료들은 그 대안으로 집합효능감이론(collective efficacy theory)을 제시하였다(Sampson, Raudenbush and Earls, 1997; Sampson, Morenoff and Earls, 1999; Sampson, 2004; 2006). 샘슨과 동료들(Sampson, Raudenbush and Earls, 1997; Sampson, Morenoff and Earls, 1999)도 지역유대가 반드시 효과적인 사회통제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데에는 동의를 하였다. 대신 이들은 지역주민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결속력과 지역의 사회통제를 연결시키기 위해 ‘집합효능감(collective efficacy)’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집합효능감이란 지역성원 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집단적인 의향으로 사회적 연결망 혹은 유대를 지역에 대한 통제력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샘슨(Sampson, 2004; 2006)은 개념적으로 집합효능감이 상호신뢰와 지지에 기초한 사회결속력(social cohesion)과 사회통제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개입(intervention) 및 참여(participation)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면서, 경험적 연구를 통해 볼 때 집합효능감이 범죄, 무질서, 건강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영역에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³⁾

3) 실제로 집합효능감의 효과는 여러 경험적 분석에서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960년부터 1999년까지 200여 논문을 메타분석(meta analysis)한 연구(Pratt and Cullen, 2005)에 따르면, 대체로 범죄율과는 부적인 관계를 보였고, 다양한 범죄동기 요인 중에서 가난, 결손가정, 인종 다음으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Sampson, 2006: 156).

2. 무질서이론

지역사회와 범죄현상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무질서(disorder)⁴⁾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다(Sampson and Raudenbush, 1999; 정진성, 2010). 애초 무질서에 관한 논의는 범죄두려움(fear of crime)에 관한 연구에서 시작되었으나⁵⁾, 본격적인 논의는 윌슨과 켈링(Wilson and Kelling, 1982)의 ‘깨진 창문 이론(broken windows theory)’에서 다루어졌다. 이들은 무질서와 범죄는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발전한다고 주장하면서, 무질서야말로 범죄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스코갠(Skogan, 1990)은 무질서 개념을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 즉 지역쇠퇴의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르면, 무질서는 지역사회의 통제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범죄발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무질서한 행위(구걸, 매춘, 고성방가)와 더러운 환경(쓰레기, 낙서, 버려진 집이나 자동차)이 그대로 방치되면 주민들은 공공장소를 회피하게 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며, 그 결과로 지역사회의 통제력이 약화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와 비행청소년의 일탈 욕구가 분출될 수 있는 환경이 쉽게 조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지역의 범죄자에게도 그 지역의 무질서가 범죄유인으로 작용하여 절도, 강도, 폭력 등 심각한 범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즉 무질서의 증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 증가, 지역의 사회 통제 약화, 범죄의 발생이라는 순차적 연결고리의 시발점이 무질서라는 주장이다(정진성, 2009; 2010). 그러므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질서에 대한 엄격한 관리, 즉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았다. 무관용 정책은 뉴욕시의 치안대책에 활용되어 범죄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유

4) 스코갠(1990)은 무질서를 “공공행위와 관련한 규범을 위반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루이스와 살렘(1986)은 “공동된 기준과 가치를 파괴하는 무례한 행위”로 규정하였다. 한 마디로 무질서란 불량스러운 심대들이 몰려다니며 무분별하게 행동하거나 훼손되고 버려진 건물이 많은 지역, 술집·오락 시설이 밀집한 유흥가나 외국인이 많은 거리, 마약과 폭력이 횡행하는 지역의 모습을 말한다. 따라서 무질서는 범죄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에서 정의내리는 문제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5) 루이스와 살렘(Lewis and Salem, 1986)은 어떤 지역의 무질서는 그 지역의 관심사, 가치, 자원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무질서의 심각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경험적으로 밝혔다.

럽과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도 하였다(Waquant, 1999).

그러나 무질서이론은 정책적 측면과 이론적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강경한 대처 및 높은 수감율 등 공권력에 의한 사회통제에 지나치게 의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이데올로기를 확산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Waquant, 1999). 이론적 측면에서는 지역무질서와 범죄발생 간의 허위적 상관성을 마치 인과적 관계인 양 분석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는데, 샘슨과 로덴부쉬(Sampson and Raudenbush, 1999)에 따르면 무질서는 범죄관련 기제를 표상하는 것으로 지역의 무질서와 범죄는 심각성의 측면에서만 다를 뿐 동일한 원인(common cause)에서 파생한 유사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질서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도시지역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간과할 수는 없는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Hancock, 2001; Taylor, 2001; 정진성, 2010).

이상에서 살펴본 사회해체이론, 체계이론, 집합효능감이론, 무질서이론은 지역사회의 수준에서 사회통제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범죄가 발생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들로 크게 보면 하나의 이론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각 이론들이 강조하는 개념은 조금씩 다른데 사회해체이론이 경제적 빈곤, 높은 이동률, 다양한 인종구성 등 사회해체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체계이론과 집합효능감이론, 무질서이론은 이러한 사회해체적 특성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범죄발생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사회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체계이론은 다양한 사회적 수준에서의 관계적 연결망을 통한 통제과정을, 집합효능감이론은 지역의 유대를 바탕으로 한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무질서이론은 무질서로 인해 지역통제가 와해되는 과정을 각각 강조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세 이론이 강조하는 부분은 조금씩 다르지만, 세 이론 모두 지역수준의 사회통제과정에 관심을 두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관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태학이라는 큰 틀 속에서 지역의 범죄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서로 다른 부분을 강조하는 세 가지 이론을 어떻게 하나의 모형으로 통합할 것인가이다.

3. 연구모형의 설정

최근에는 지역특성과 범죄현상 간의 관계를 연구할 수 있는 양질의 자료가 수집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통계적 방법이 발전하면서 지역수준에서 범죄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수많은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수행되고 있다(Giacopassi and Forde, 2000; Harcourt, 2001; Markowitz, Bellair, Liska and Liu, 2001; Morenoff, Sampson and Raudenbush, 2001; Taylor, 2001; 이성식, 2003; DeKeseredy, 2003; Duncan, 2003; Lowenkamp, Cullen and Pratt, 2003; Triplett, Gainy and Sun, 2003; Atkinson and Flint, 2004; Xu, Fiedler and Flaming, 2005; Jean, 2007; 정진성 · 곽대훈, 2008; 윤우석, 2010; Yang, 2010; 정진성 · 박현호, 2010; 정진성 · 황의갑, 2010; 박성훈, 2011b). 예컨대, 마르코비츠 등(Markowitz et al. 2001)은 종단자료를 이용해 지역무질서가 범죄발생에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즉 지역무질서는 지역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고 개인의 야외활동은 물론 지역의 활동을 위축시켜 지역사회의 통제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국내 연구에서 이성식(2003)은 무질서이론이나 집합효능감이론 모두 범죄피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지역유대로 보기 때문에 지역무질서와 지역유대를 상호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설정하고, 범죄피해는 지역유대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검토해 볼 때, 범죄현상과 관련이 있는 지역요인의 영향력은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될 수 없다. 이론적 논의에 따라 지역요인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전국수준의 자료를 이용해 이를 검증하는 것은 물론 지역적 조건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과정도 경험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지역수준의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요인을 크게 사회해체요인, 지역통제요인, 지역무질서요인으로 구분하고, 추가적으로 지역의 아파트거주비율을 고려하고자 한다. 한국의 도시지역에서 중요한 특성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 중 하나가 주거형태이기 때문이다(박성훈, 2011a). 선행연구에 따르면(최인섭 · 기광도, 1998; 박성훈,

2011b), 개인수준에서 아파트 거주여부는 가구범죄피해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수준에서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일수록 범죄피해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적 맥락에서 의미가 클 것으로 여겨진다.⁶⁾

지역 수준에서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형을 검증하는데 적합한 통계방법은 구조방정식모형(SEM)이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에서 이론변인은 지역의 사회경제수준, 주거불안정성, 아파트거주비율, 주민결속력, 주민참여정도,⁷⁾ 지역무질서, 지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율이다. 지역요인 간 인과관계는 <그림 1>과 같다. 먼저 사회해체요인 및 아파트거주비율은 주민결속력 뿐만 아니라 지역무질서, 지역 내 범죄피해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 다음으로 수정된 사회해체이론의 가설에 따라 주민결속력이 주민참여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⁸⁾

- 6) 지역 내 아파트비율이 사회생태학적 환경을 반영하는지 주민의 경제수준과 불안정성을 대변하는지 모호하다는 논평자의 지적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아파트거주비율을 경제력과 문화적 상징성을 반영하는 사회생태적 환경으로 가정하고자 한다. 아파트거주가 경제수준 및 주거이동성과 겹치는 부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지역의 경제수준이나 주거불안정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아파트주거문화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은 한국의 도시지역에서 지역수준의 범죄현상을 설명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별도의 지역요인으로 고려하였다.
- 7) 샘슨과 동료들(Sampson et al. 1997, Sampson, 2006)에 의하면 집합효능감은 지역주민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주민결속력과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의 참여정도를 합친 개념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집합효능감을 주민결속력과 주민참여정도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집합효능감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논문으로는 스텝토와 펠드먼(Steptoe and Feldman, 2001), 트리플릿 등(Triplett, Gainy and Sun, 2003), 벨레어와 브라우닝(Bellair and Browning, 2010), 윤우석(2010), 박성훈(2011b)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집합효능감을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두 개의 요인으로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더 낫다고 주장한다.
- 8) 주민결속력과 주민참여정도 간의 관계 설정에 있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집합효능감이론에 따르면, 집합효능감은 개념적으로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되는 것일 뿐 원인-결과 관계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주민결속력과 주민참여정도를 인과적 관계로 설정한 이유는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집합효능감이론의 논리는 결국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뒤따라야만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작동하고 그로 인해 범죄가 줄어든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민참여는 주민 간 결속력 혹은 유대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결속력이 주민참여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통계적 측면에서의 이유는 구조방정식모형의 특성 상 내생변인 간에는 상관관계를 설정할 수 없고, 다만 일방적 관계 혹은 상호적 관계만을 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참여정도가 주민결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할 수는 있으나, 이럴 경우 통계적 추정이 매우 어려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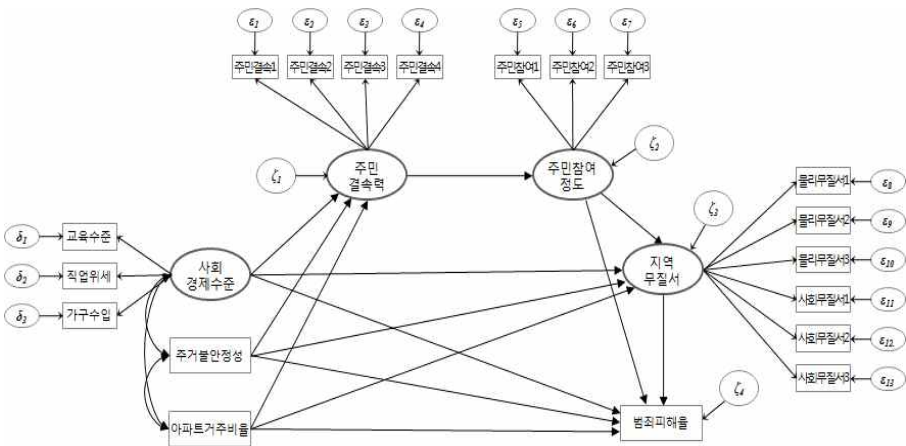


그림 1. 지역수준의 인과관계 분석 모형

그리고 집합효능감이론에 따라 주민참여정도가 지역무질서는 물론 지역 내 범죄 피해율을 감소시킬 것으로 가정한다. 동시에 무질서이론에 따라 지역무질서는 지역 내 범죄피해율을 증가시킬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두 가지 대립되는 가설은 지역무질서와 범죄피해의 관계가 허위적이라는 주장(Sampson and Raudenbush, 1999)을 한국의 도시지역에 적용하여 검증하는 측면도 있다.⁹⁾

두 번째 연구문제는 첫 번째 연구문제에서 설정한 지역요인 간의 인과관계가 지역의 사회경제수준에 따라 양상이 다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사실 사회해체이론으로 대표되는 사회생태학적 관점은 주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지역일수록 왜 범죄율이 높은가에 대한 물음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사회해체이론은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보다 적합한 설명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태학적 관점의 연구들은 빈곤지역 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하여 이론

9) ‘주민결속력 → 주민참여정도 → 무질서’로 이어지는 인과관계의 설정이 본래 무질서모형이 제시하는 논리구조와 다르다는 논쟁자의 지적이 있었다. 무질서이론에 의하면, 지역사회에 무질서 현상이 일부 발생할 때 적절한 통제를 가하지 못할 경우 지역사회에 불안이 높아지고 이는 지역주민 간의 유대감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질서 → 주민결속력 → 주민참여정도’로 인과관계가 설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한 관계설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만일 상호적(reciprocal) 관계로 모형을 설정할 경우 통계적으로 매우 복잡한 모형이 되기 때문에 추정이 불가능하거나 모형적합도가 나빠질 수 있다는 점, 횡단자료이기 때문에 상호적 관계를 설정할 경우 인과성이 모호해진다는 점 때문에 무질서이론보다는 집합효능감이론에 보다 가깝게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음을 밝힌다.

을 검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초기의 이론적 문제의식에 따라 지역특성과 범죄발생 간의 관계가 실제로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일수록 더 유효한지 여부를 경험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두 번째 연구문제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지역의 사회경제 수준에 따라 대상지역을 ‘평균이상 지역’과 ‘평균이하 지역’으로 구분하여 다집단 분석을 적용함으로써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Kline, 2011; 김주환 · 김민규 · 홍세희, 2009).

III.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0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2008 전국 범죄피해조사(KCVS)’이다.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모집단은 전국의 모든 가구 및 만 14세 이상 가구원으로, 표본추출 틀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중 보통조사구와 아파트 조사구를 사용하였다. 표집은 전국을 25개 지역으로 층화시킨 후 각 층별로 연령별 인구를 고려하여 지역별 표본규모에 해당하는 만큼 확률비례계통추출을 하였다(김은경 · 최수형 · 박정선, 2009). 2008년 KCVS는 표본추출단위가 ‘조사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수준에서 다양한 분석단위(시/도, 구/군, 읍/면/동)의 집합자료(aggregated data)를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여¹⁰⁾ 분석단위를 도시행정구역 가운데 하나인 ‘동(洞)’으로 설정하였다.

지역수준의 연구에서 분석단위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는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데,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이웃(neighborhood)’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Bursik and

10) 전체 표본 중에서 도시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사회해체이론이 출현하게 된 배경과 비도시 지역에 관한 경험적 연구결과의 차이 때문이다(박성훈, 2011a).

Grasmick, 1993). 외국의 경우에는 주로 선거구(electoral tract)를 사용하거나 인구 센서스의 조사구(census tract)를 분석단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Sampson and Groves, 1989; Miethe and McDowell, 1993). 연구자에 따라서는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석단위를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인지적·문화적 경계를 확인하여 지역단위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ice and Smith, 2002; Jean, 2007).

국내의 연구에서는 동/리(이성식, 1998; 윤우석, 2010)를 사용하거나 구/군(김준호·박현수·박성훈, 2010; 정진성·황의갑, 2010) 등 주로 행정단위를 이용하거나, 각 지역별 관할경찰서(정진성·곽대훈, 2008)를 분석단위로 설정한 경우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 지역수준의 분석단위로 동을 설정한 이유는 경험적으로 볼 때 한국의 도시지역에서 행정은 물론 주택·교육·문화와 관련한 시민생활은 주로 동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실 도시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생활 세계’의 범위로서 구 단위는 너무 넓은 반면, 조사구 단위는 오히려 너무 좁게 다가온다. 따라서 그 중간범위 수준의 동 단위가야 말로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우리 동네’ 혹은 ‘이웃’이라고 느낄 수 있는 생활세계 영역으로써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지역수준에서 분석단위를 동으로 설정한 결과, 지역수준의 표본은 285개동으로 나타났고, 평균적으로 1개동에서 약 24명이 응답에 참여하였다.

2. 변인의 측정

가. 종속변인

종속변인은 2008년 한 해 동안 ‘개인 및 가구에서 당한 범죄피해’이다. 그리고 종속변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개인 및 가구범죄 가운데 한 번이라도 피해를 당한 적이 있으면 ‘피해 있음=1’, 없으면 ‘피해 없음=0’으로 측정하였다.

개인범죄피해는 재산범죄피해와 폭력범죄피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개인범죄피해의 세부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재산범죄피해는 사기를 제외한 절도만 포함되고, 폭력범죄피해는 단순폭행, 심한폭행, 단순협박이 포함되었다.¹¹⁾ 가구범죄피해는 단순손괴, 단순침입, 주거침입손괴,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 기타 가

구대상범죄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개인범죄피해와 가구범죄피해 모두 사건의 발생지가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와 동일한 경우만 고려하였다.

나. 독립변인

지역수준의 변인은 크게 사회해체요인, 지역통제요인, 무질서요인, 아파트거주비율로 구분하였다. 사회해체요인은 사회경제적 수준, 주거불안정성이 포함되고, 지역통제요인에는 주민결속력과 주민참여정도가 포함된다. 그리고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를 합쳐 지역무질서를 무질서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지역수준의 변인은 동별로 객관적인 공식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측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접근하기에 매우 제한적이며, 설령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지역요인을 제대로 측정할만한 지표가 많지 않은 편이다.¹²⁾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지역요인의 값을 개인요인의 평균값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방법을 따라 지역요인을 해당 문항의 동별 평균값으로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은 가구수입¹³⁾, 직업지위, 교육수준의 요인점수를 사용하였고, 주거불안정성은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얼마나 오래 거주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재범주화 하였다.¹⁴⁾

주민결속력은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는데, “나는 급히 3만원 정도를 빌릴 수 있는 이웃이 있다”, “우리 동네는 이웃끼리 서로 잘 돕고 신뢰 한다”, “악수 등 신

11) 2009년에 개편된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범죄유형은 각 사건조사표에 기입된 범죄수법 및 피해양상 등 설문에 응답된 사건의 구성요건들을 종합하여 판별한 후 사후적으로 분류를 한 것이다. 각 범죄피해유형의 판별 기준은 김은경·최수형·박정선(2010)을 참고하기 바란다.

12) 지역변수를 평균값이 아닌 통계청 자료 등 실제로 측정한 공식통계 자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논평자의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동 단위의 지역변인은 쉽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 설사 동별 자료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가공에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점, 지역마다 집계하는 방식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 때문에 차선택으로나마 이 연구에서는 평균값을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13) 사회경제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본인수입이 아닌 가구수입을 사용한 이유는 학생, 주부 등 본인 수입은 없지만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사회경제수준이 낮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가구의 전체수입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도를 높인다고 생각한다.

14) 거주기간은 ○년○개월로 응답한 것을 ○개월로 환산하고, 이것을 범주별로 재부호화(recoding)한 후, 다시 역부호화(reverse coding)하여 ‘1년이하=5’, ‘2~4년이하=4’, ‘5~10년이하=3’, ‘10~20년이하=2’, ‘20년이상=1’로 바꾸었다.

체적 접촉을 하며 반갑게 안부를 묻는 사람의 수”, “30초 이상 서서 서로의 이야기를 하며 인사하는 사람의 수”로 1점부터 5점까지 측정을 하였다. 주민참여정도는 “동네아이들이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어떻게라도 도와줄 것이다”, “여학생이 불량배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면 어떤 방식이라도 도와줄 것이다”,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등 3개 문항으로 1점부터 5점까지 측정하였다.

지역무질서는 개념적으로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로 구분이 가능하며, 개념적 정의에 따라 각각 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리적 무질서는 “주변에 내버려진 물건이나 쓰레기 더미가 널려 있다”, “후미진 곳이나 공터 등이 많다”, “냄새나 소음 등으로 쾌적하지 않다”, 사회적 무질서는 “우리 동네는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무리지어 다니는 불량청소년들이 많다”, “큰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로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¹⁵⁾

IV.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분석결과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지역요인별로 신뢰도 계수를 살펴본 결과 가구수입, 직업지위, 교육수준으로 측정된 사회경제수준의 신뢰도 계수는 0.77로 측정변인 간 신뢰도는 낮지 않은 편이었다.

15) 일부 연구(Taylor, 2001; Jean, 2007)에서는 지역무질서를 구분하여 각각의 무질서가 다른 지역요인이나 범죄발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또 다른 연구(Skogan, 1990; Harcourt, 2001)에서는 지역무질서를 구분하지 않고 분석한 경우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분석을 하였는데, 요인분석 결과 무질서를 측정한 문항이 두 개의 요인으로 뚜렷이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표 1. 변인의 기술통계(N=285)

지역요인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신뢰계수(α)
사회해체요인	사회경제수준					0.77
	(가구수입)	4.02	0.80	1.91	6.13	
	(직업위세)	2.27	0.70	0.43	4.90	
	(교육수준)	2.20	0.39	1.11	3.23	
지역통제요인	주거불안정성					0.92
	(거주기간)	3.05	0.70	1.18	4.92	
	주민결속력					
	(주민결속1)	3.06	0.54	1.00	4.86	
	(주민결속2)	2.98	0.46	1.31	4.64	0.79
	(주민결속3)	2.28	0.62	1.00	4.82	
	(주민결속4)	2.44	0.63	1.00	4.82	
	주민참여정도					
	(주민참여1)	3.46	0.36	1.62	4.74	0.92
	(주민참여2)	3.60	0.38	1.48	4.79	
	(주민참여3)	3.15	0.45	1.71	4.39	
무질서요인	지역무질서					0.92
	(사회무질서1)	2.85	0.47	1.48	4.23	
	(사회무질서2)	2.65	0.54	1.00	4.05	
	(사회무질서3)	2.53	0.56	1.00	4.42	
	(물리무질서1)	2.52	0.61	1.00	4.68	
	(물리무질서2)	2.68	0.54	1.00	4.73	
	(물리무질서3)	2.69	0.61	1.13	4.93	
도시지역특성	아파트거주비율	0.47	0.49	0.00	1.00	
범죄피해유형 ^a	재산범죄피해율	0.025	0.044	0.00	0.250	
	폭력범죄피해율	0.007	0.019	0.00	0.115	
	가구범죄피해율	0.045	0.074	0.00	0.300	

a 지역 내 범죄피해만을 고려한 것으로, 현 주소지와 동일한 장소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만 포함시킴

주민결속력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0.92로 주민참여정도의 신뢰도 계수 0.79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민결속력으로 측정한 문항 중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급히 3만원을 빌릴 수 있는 이웃이 있다’(3.06)인 반면, ‘신체접촉으로 안부를 묻는 사람 수’(2.28)로 가장 낮았다. 주민참여정도로 측정한 문항에서는 ‘동네 여학생이 괴롭

힘을 당하면 도와줄 것이다’(3.60)의 평균점수가 높은 반면, ‘범죄가 자주 발생하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3.15)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무질서의 신뢰도 계수는 0.92로 측정문항 간 신뢰도는 좋은 편이었다. 측정 항목별 평균점수는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다’(2.85), ‘냄새나 소음으로 쾌적하지 않다’(2.69), ‘후미진 곳이나 공터가 많다’(2.68), ‘무리 지어 다니는 불량 청소년이 많다’(2.6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의 도시지역의 특성으로 측정한 아파트거주비율의 평균은 0.47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비율보다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종속변인으로 측정한 세 가지 범죄피해유형 중에서는 가구범죄피해(약 4.5%)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개인재산피해(약 2.5%), 개인폭력피해(약 0.7%) 순이었다. 지역 간 범죄피해발생의 분포를 보여주는 표준편차에서도 가구범죄피해가 개인범죄피해보다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다.

2. 측정모형의 분석결과

구조모형으로 설정한 이론변인, 즉 사회경제수준, 주민결속력, 주민참여정도, 지역무질서에 대한 측정모형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준화회귀계수를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사회경제수준의 경우 상대적으로 직업위세의 값이 교육수준이나 가구수입에 비해서는 낮았다. 주민결속력의 경우에는 측정변인이 대체로 안정적인 반면, 주민참여정도의 경우에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의 타당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무질서의 측정변인에서도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다’와 ‘무리를 지어 다니는 불량청소년이 많다’의 타당도가 다소 낮았으나, 모든 측정변인의 t-검정 결과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분석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2. 측정모형의 추정결과

이론변인	측정변인	변인명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사회경제수준	교육수준	교육수준	1,000	0.960	
	가구수입	가구수입	1,290	0.717	11.32 **
	직업위세	직업위세	1,445	0.611	9.72 **
주민결속력	급히 3만원을 빌릴 수 있는 이웃이 있다	주민결속(1)	1,000	0.746	
	우리 동네는 이웃끼리 돕고 신뢰 한다	주민결속(2)	0.914	0.840	15.84 **
	신체접촉으로 안부를 묻는 사람수	주민결속(3)	1,238	0.812	11.79 **
	30초 이상 서서 서로 얘기하는 사람수	주민결속(4)	1,353	0.870	12.56 **
주민참여정도	동네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줄 것이다	주민참여(1)	1,000	0.794	
	동네여학생이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줄 것이다	주민참여(2)	0.939	0.725	15.76 **
	범죄가 자주 발생하면 해결위해 노력할 것이다	주민참여(3)	0.766	0.501	4.02 **
지역무질서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다	지역무질서(1)	1,000	0.649	
	무리지어 다니는 불량청소년이 많다	지역무질서(2)	0.841	0.571	12.46 **
	큰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을 자주 본다	지역무질서(3)	0.933	0.701	13.67 **
	내버린 물건이나 쓰레기더미가 널려 있다	지역무질서(1)	1,263	0.751	12.41 **
	후미진 곳이나 공터가 많다	지역무질서(2)	1,181	0.778	11.61 **
	냄새나 소음으로 쾌적하지 않다	지역무질서(3)	1,641	0.979	12.99 **

**p<0.01

3. 구조모형의 분석결과

첫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 세 가지 범죄피해유형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goodness-of-fit)는 <표 3>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해석기준에 비추어 볼 때 완벽한 모형은 아니지만 그리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¹⁶⁾ 특히 개인범죄피해보다는 가구범죄피해에 대한 모형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따라서 어떤 적합도를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많다(Kline, 2011; 김주환 · 김민규 · 홍세희, 2009).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언에 따라 모형의 적합도를 해석하였다. “구조방정식의 목적은 일반적인 모형을 어느 특정한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데이터에 가장 걸맞은 어떤 모형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김주환 · 김민규 · 홍세희, 2009: 145).

표 3. 모형적합도 지수

모형적합도	재산범죄피해	폭력범죄피해	가구범죄피해	해석기준
카이제곱	374,914**	358,427**	350,673**	
TLI	0.909	0.915	0.914	0.90이상
CFI	0.933	0.937	0.936	0.90이상
RMSEA	0.083	0.080	0.078	0.08이하
RMR	0.025	0.025	0.029	0.05이하

**p<0.01

각각의 범죄피해유형에 대한 구조모형의 추정 경로계수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개인재산범죄피해의 결과를 살펴보면, 외생변인으로 설정한 사회경제수준, 주거불안정성이 내생변인인 주민결속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달리 말해서 사회경제수준이 높을수록($\gamma_{11}=-0.23$), 주거불안정성이 높을수록($\gamma_{12}=-0.51$) 주민결속력은 낮게 나타났다.

다른 외생변인인 아파트거주비율은 주민결속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지역무질서에 대한 외생변인의 영향력에서는 주민결속력과 반대로 사회경제수준과 주거불안정성보다는 아파트거주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gamma_{33}=-0.47$). 즉 아파트거주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역무질서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주민결속력이 주민참여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인 방향에서($\beta_{21}=0.43$)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주민결속력이 높을수록 주민참여정도 또한 높은 경향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민참여정도는 지역무질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_{32}=-0.18$). 즉 주민참여정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지역무질서에 대한 인식은 낮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재산범죄피해유형에는 어떠한 지역요인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폭력범죄피해 역시 개인재산범죄피해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각 내생변인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면 구조모형에서 개인재산범죄피해를 설명하는 비율이 약 1.6%, 개인폭력범죄피해의 경우에는 약 0.6%에 불과하여 이 연구에서 설정한 지역요인 간 인과모형이 개인범죄피해를 거의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4. 구조모형의 추정결과(N=285)

		외생변인			내생변인			R^2
		사회경제 수준	주거 불안정성	아파트 거주비율	주민 결속력	주민참여 정도	지역 무질서	
재산 범죄 피해	주민결속력	-0.28** (-0.23)	-0.31** (-0.51)	0.04 (0.04)	-	-	-	0.422
	주민참여정도	-	-	-	0.27** (0.43)	-	-	0.183
	지역무질서	-0.16 (-0.15)	0.01 (0.03)	-0.36** (-0.47)	-	-0.24* (-0.18)	-	0.318
	범죄피해율	-0.01 (-0.04)	0.00 (-0.05)	0.01 (0.09)	-	0.01 (0.07)	0.00 (0.00)	0.016
폭력 범죄 피해	주민결속력	-0.29** (-0.23)	-0.31** (-0.51)	0.04 (0.05)	-	-	-	0.423
	주민참여정도	-	-	-	0.27** (0.43)	-	-	0.185
	지역무질서	-0.16 (-0.15)	0.01 (0.03)	-0.36** (-0.47)	-	-0.24* (-0.18)	-	0.318
	범죄피해율	0.00 (0.02)	0.00 (0.03)	0.00 (-0.10)	-	0.00 (-0.02)	0.00 (-0.04)	0.006
가구 범죄 피해	주민결속력	-0.09 (-0.09)	-0.42** (-0.63)	-0.02 (-0.02)	-	-	-	0.469
	주민참여정도	-	-	-	0.30** (0.46)	-	-	0.209
	지역무질서	-0.17** (-0.22)	0.04 (0.08)	-0.34** (-0.45)	-	-0.15 (-0.13)	-	0.338
	범죄피해율	-0.02* (-0.15)	0.00 (-0.02)	-0.03* (-0.16)	-	0.01 (0.02)	0.00 (0.01)	0.084

†p<0.1 *p<0.05 **p<0.01

제시된 값은 비표준화된 회귀계수이며, ()의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나타냄

그러나 가구범죄피해의 경우에는 최종 내생변인에 대한 설명력(약 8.4%)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생변인이 주민결속력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주거불안정성($\gamma_{12}=-0.63$)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무질서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수준($\gamma_{31}=-0.22$)과 아파트거주비율($\gamma_{33}=-0.4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내생변인 간의 관계에서는 주민결속력이 주민참여정도에 미

치는 영향($\beta_{21}=0.46$)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가구범죄피해율에 대해서는 아파트거주비율($\gamma_{43}=-0.16$)과 사회경제수준($\gamma_{41}=-0.15$)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파트거주비율이 높고 사회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가구범죄피해율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외생변인 간 상관계수에서 사회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아파트거주비율이 높게 나타나($\phi_{13}=0.526$), 사회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거주비율이 높고, 그러한 지역일수록 가구범죄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주민결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은 주거불안정성이고, 지역무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은 사회경제수준과 아파트거주비율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민결속력이 주민참여정도에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가구범죄피해를 억제할 만큼의 강한 효과는 보여주지는 못하는 반면, 오히려 사회경제수준과 아파트거주비율이 가구범죄피해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파트거주비율이 가구범죄피해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물론 지역통제요인과 지역무질서요인을 통한 간접효과가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날까?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지역요인의 효과는 지역의 사회경제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이성식, 1998).¹⁷⁾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지역요인 간의 인과모형이 지역의 사회경제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4. 다집단 분석결과

이 연구에서는 지역요인의 효과가 지역의 사회경제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집단 간 경로추정계수를 비교하는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¹⁸⁾ 집단은 사회경제수준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평균이상의 지역’과 ‘평균이하의 지역’으로 구분하였다.¹⁹⁾ 분석 결과 ‘평균이상’은 136개 지역, ‘평균이하’는 149

17) 대구지역에 대한 연구에서 지역특성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의 사회경제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바 있다(이성식, 1998).

18) 집단 간 경로계수의 비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개인범죄피해는 제외하고 가구범죄피해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집단 간에 교차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²⁰⁾ 이론변인에 대한 모든 요인적재치를 동일하게 고정한 모형의 적합도를 측정한 결과 대체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chi^2=433.099$, $TLI=0.891$, $RMSEA=0.067$).

다음으로 10개의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10개를 기저모형과 비교하였다. <표 5>에서와 같이 모든 경로계수까지 동일성 제약을 가해도 모형의 적합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Delta\chi^2=11.686$, $\Delta TLI=-0.005$, $\Delta RMSEA=0.002$, $p=0.307$). 이러한 결과는 연구모형이 사회경제수준이 평균이상인 지역과 평균이하인 지역 모두에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5. 기저모형과 경로추정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간의 비교

	자유도변화량	χ^2 변화량	유의확률	TLI 변화량	RMSEA 변화량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	10	11.686	0.307	-0.005	0.002

<표 6>은 측정 동일성과 집단 간 등가성 검증을 거친 모형에 대한 사회경제수준 평균이상 지역과 평균이하 지역의 경로계수를 비교한 결과이다.

두 집단 모두 주거불안정성이 주민결속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주민결속력이 주민참여정도에 미치는 영향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아파트거주비율이 지역무질서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주민참여정도가 지역무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아파트거주비율이 가구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경제수준이 평균이하인 지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19) 사회경제수준의 평균은 - 0.009, 표준편차는 0.608, 최소값은 - 1.70, 최대값은 1.68점으로 나타났다.

20) 집단 간 비교(test of the structural model invariance across the groups)는 측정모형 간의 경로계수의 차이를 고찰하는 분석 기법이다. 즉 집단 간 비교는 구조모형에서 한 집단의 경로계수가 다른 집단의 경로계수와 동일한지를 검증할 때 이용된다. 경로계수의 집단 간 비교를 위해서는 측정 동일성 제약(metric invariance constraints)과 집단 간 등가제약(cross-group equality constraints)의 과정을 거친다. 측정 동일성 제약은 연구모형에서 각 집단 간 반응결과가 동일한지를 검증하는데, 교차타당성이 성립하면 집단 간의 회귀계수는 동일한 수준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집단 간 등가 제약은 일련의 회귀계수들에 대해 제약을 가한 후 각 경로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한다(Byrne, 2001; 김주환 · 김민규 · 홍세희, 2009: 267).

게 나타났다.²¹⁾ <그림 2>는 두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를 좀 더 분명히 비교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만을 실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 6. 집단 간 경로계수 추정결과(요인적재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추정 모수		사회경제수준 평균이상 지역 (N=136)		사회경제수준 평균이하 지역 (N=149)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주거불안정	→ 주민결속력	-0.38	-0.56 **	-0.49	-0.68 **
아파트거주비율	→ 주민결속력	0.05	0.06	-0.08	-0.07
주민결속력	→ 주민참여정도	0.26	0.31 **	0.34	0.43 **
주거불안정	→ 지역무질서	0.09	0.15	0.09	0.17
아파트거주비율	→ 지역무질서	-0.38	-0.50 **	-0.25	-0.26 **
주민참여정도	→ 지역무질서	-0.10	-0.09	-0.23	-0.24 **
주거불안정	→ 가구피해율	0.00	0.01	-0.01	-0.11
아파트거주비율	→ 가구피해율	-0.02	-0.11	-0.04	-0.21 *
주민참여정도	→ 가구피해율	0.01	0.03	0.00	-0.01
지역무질서	→ 가구피해율	0.02	0.11	-0.01	-0.03

*p<0.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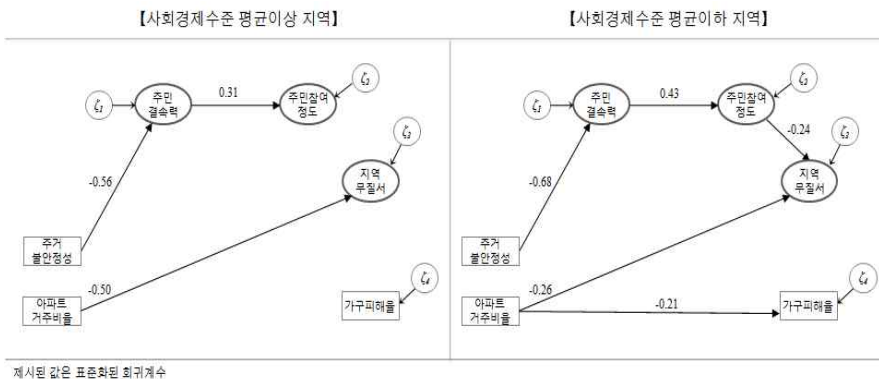


그림 2. 지역의 사회경제수준에 따른 경로계수의 차이

21) 분석결과, 가구범죄피해는 사회경제수준이 높은 지역보다 낮은 지역에서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이하 지역=0.057, 평균이상 지역=0.031).

사회경제수준이 평균이상인 지역의 경우 주거불안정성이 높을수록 주민결속력이 낮아지고, 아파트거주비율이 높을수록 지역무질서는 낮은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주민결속력이 높을수록 주민참여정도는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어떤 지역 요인도 지역의 가구범죄피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경제수준이 평균이하인 지역에서는 주거불안정성이 높을수록 주민결속력이 낮고, 아파트거주비율이 높을수록 지역무질서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주민결속력이 높을수록 주민참여정도가 높은 경향은 사회경제수준이 높은 지역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주민참여정도가 높을수록 지역무질서가 낮아지는 경향과 아파트거주비율이 높을수록 가구범죄피해를 덜 당하는 경향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해체이론의 관점이 사회경제수준이 높은 지역보다는 낮은 지역의 범죄현상을 설명하는 데 보다 적합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사회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의 경우 지역주민 간의 결속력이나 주민참여정도와 같은 지역요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개인 혹은 가구단위의 범죄예방능력이 충분한 반면,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개인중심의 범죄예방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주민 간의 결속력이나 주민참여정도를 통한 지역수준의 범죄예방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이성식, 1998).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아파트거주비율의 영향력이 사회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두드러진다는 사실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도시지역에서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산다는 것은 개인수준의 가구범죄피해를 억제하는 데 어떤 다른 범죄기회요인보다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성훈, 2011b). 이러한 개인수준에서의 결과를 지역수준의 결과와 연계하여 해석해 보면, 주거형태의 영향력은 사회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가진다고도 볼 수 있다. 즉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아파트에 살건 연립/다세대 주택에 살건 간에 가구범죄피해 가능성의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연립/다세대 주택에 산다는 것은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가구범죄피해를 당할 개연성에서 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V. 결론

이 연구는 ‘사회적 사실(social fact)’로서의 범죄현상을 개인수준의 미시적 관점이 아닌 지역수준의 거시적 관점에서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지역수준의 다양한 지역요인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병렬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지역요인 간의 인과모형을 설정하여 범죄피해가 발생하는 과정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요인을 사회해체요인, 지역통제요인, 지역무질서요인, 주거형태요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요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지역요인 간의 인과관계는 수정된 사회해체이론의 입장을 따라 사회경제수준, 주거불안정성, 아파트거주비율과 같은 지역특성이 주민결속력에 영향을 미치고 주민결속력은 주민참여정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지역통제요인은 지역무질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범죄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계를 설정하였고, 각 요인들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도 동시에 고려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이러한 지역요인 간의 관계가 사회경제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양상이 동일한지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사회해체이론의 관점이 어떤 지역조건에서 더 적실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우선 이 연구에서 설정한 지역요인 간 인과관계가 개인범죄피해는 잘 설명하지 못하는 반면, 가구범죄피해는 어느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범죄피해를 재산범죄피해와 폭력범죄피해로 구분하여 분석을 하였으나, 어떤 지역요인도 재산범죄피해나 폭력범죄피해를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범죄피해의 경우, 지역특성보다는 주로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이나 범죄기회요인(매력성, 노출, 보호능력)에 의한 설명력이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김준호·박현수·박성훈, 2010)와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개인범죄피해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보다는 출퇴근길이나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시내중심 혹은 유흥·편의시설이 많이 위치한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개인범죄피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 이외에 다양한 개인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가구범죄피해의 경우에도 예상과 달리 사회해체요인이나 지역통제요인, 지역무질서요인은 가구범죄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오히려 아파트거주비율이라는 지역의 주거형태 특성이 가구범죄피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범죄피해를 설명하기 위해 개인수준에서는 물론 지역수준에서도 주거문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박성훈, 2011b)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로 서구의 경험적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도시지역에서도 주민결속력과 주민참여정도와 같은 지역통제는 주거불안정성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지역통제가 약화될 때 지역무질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사회경제수준과 주민결속력의 관계는 오히려 반대이거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아파트 주거문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한국의 도시지역에서는 대부분 아파트가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주택에 비해 주택가격이 높은 편이며, 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해 자가 소유보다는 전세로 입주하는 경우가 많아 가구이동이 잦을 수밖에 없다. 높은 사회경제수준, 높은 주거불안정, 아파트거주비율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는 분석결과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가구범죄피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도시지역의 주거문화를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로 앞서 제시한 지역요인 간의 인과모형이 사회경제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설명이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수준이 평균이상인 지역보다는 평균이하인 지역에서 보다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의 사회경제수준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사회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구범죄피해는 지역요인에 의한 영향보다는 가구특성이나 범죄기회요인의 차이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사회경제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구범죄피해는 개인중심의 범죄예방능력보다는 지역의 주거형태, 주민참여정도, 무질서와 같은 지역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사회해체이론의 관점은 사회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의 범죄현상보다는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하고 불안정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현상을 설명하는데 보다 적합한 이론이라고 여겨진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향후 보다 타당성 높은 측정과 정교한 인과모형을 적용한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만 좀 더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사회생태학적 관점에 근거하여 한국의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를 지역수준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한국적 맥락에서 특수한 요인인 아파트 주거문화와 범죄현상 간의 관계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였고, 지역요인을 개인수준의 값을 합산하여 사용함으로써 개인주의적 오류가능성을 극복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는 한국의 도시지역에 대한 사례연구나 지역주민과의 심층면접, 지역단위의 공식통계 수집을 통해 방법론적으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자료접근의 한계로 인해 범죄발생 대신 범죄피해를 종속변인으로 사용하였으나, 범죄피해의 원인이 곧 범죄발생의 원인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허락한다면, 후속 연구에서는 범죄발생을 중심으로 지역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범죄피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작업도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은경, 최수형, 박정선. 2009.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I)』.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 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준호, 박현수, 박성훈. 2010. “한국의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1(3): 135-172.
- 박성훈. 2011a. 『한국의 도시지역 범죄피해의 지역적 맥락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성훈. 2011b. “범죄기회요인과 지역특성이 가구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22(3): 328-357.
- 신동준. 2010. “사회자본과 범죄학이론.” 『한국사회학』 44(4): 95-125.
- 윤우석. 2010. “경찰의 공식적 사회통제가 지역사회의 유대와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21(3): 381-407.
- 이성식. 1998. “범죄피해에 있어 개인수준 요인들의 지역 조건적 효과.” 『한국공안행정학회보』 7: 85-109.
- 이성식. 2003. “지역무질서, 지역유대와 범죄피해의 관계.” 『피해자학연구』 11(1): 87-106.
- 정진성, 곽대훈. 2008.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변인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 성장곡선모형을 이용한 종단적 분석.” 『형사정책연구』 19(3): 221-290.
- 정진성, 박현호. 2010. “지역회의 구조적 특성이 살인범죄에 미치는 영향: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음이향 회귀분석.” 『형사정책연구』 21(1): 91-119.
- 정진성, 황의갑. 2010. “살인범죄의 원인에 대한 거시적 분석: GIS를 활용한 공간회귀모델링.” 『형사정책』 22(1): 157-184.
- 정진성. 2009.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연구: 지역사회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5: 365-393.
- 정진성. 2010. “무질서와 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문헌분석: 방법론적 이슈들을 중심으로

- 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8: 227-258.
- 최인섭, 기광도. 1998. “가구 및 개인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일상활동이론과 사회해체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9(4): 61-80.
- Anderson, Elijah. 1999. *Code of street: Decency, violence and the moral life of the inner city*. NY: W. W. Norton & Company.
- Atkinson, Rowland and John Flint. 2004. "Order born of chaos? The capacity for informal control in disempowered and 'disorganized' neighborhoods." *Politics and Policy* 33: 333-350.
- Bellair, Paul and Christopher Browning. 2010. "Contemporary disorganization research: An assessment and further test of the systemic model of neighborhood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7(4): 496-521.
- Browning, Christopher R., Seth L. Feinberg and Robert D. Dietz. 2004. "The paradox of social organization: Networks, collective efficacy and violent crime in urban neighborhoods." *Social Forces* 83(2): 503-534.
- Bunge, Mario. 2006. "A systemic perspective on crime." pp.8-30 in Per-Olof H. Wikström and Robert J. Sampson(eds.), *The explanation of crime: Context, mechanisms and development*.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rsik, Robert J. Jr. 1988. "Social disorganization and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Problems and prospects." *Criminology* 26: 519-551.
- Bursik, Robert Jr. and Harold G. Grasmick. 1993. *Neighborhoods and crime: The dimensions of effective community control*. Maryland: Lexington Books.
- DeKeseredy, Walter S. 2003. "Perceived collective efficacy and women's victimization in public housing." *Criminal Justice* 3: 5-28.
- Duncan, Terry E. 2003. "A multilevel contextual model of neighborhood collective efficac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2: 245-252.
- Felson, Marcus and Rachel Boba. 2010. *Crime and everyday life*, (4th ed.). CA: Sage Publication.

- Giacopassi, David and David R. Forde. 2000. "Broken windows, crumpled fenders, and crim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8: 397-406.
- Hancock, Lynn. 2001. *Community, crime and disorder: Safety and regeneration in urban neighborhoods*. New York: Palgrave.
- Harcourt, Bernard E. 2001. *Illusion of order: the false promise of broken windows policing*.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Jean, Peter K. B. ST. 2007. *Pockets of crime: Broken windows, collective efficacy, and the criminal point of view*.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line, Rex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Y: The Guilford Publications, Inc.
- Kubrin, Charis E. and Ronald Weitzer. 2003. "New directions in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0(4): 374-402.
- Lander, Bernard. 1954. *Toward an understanding of juvenile delinquenc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ewis, Dan A. and Greta Salem. 1986. *Fear of Crime: Incivility and the production of a social problem*.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Books.
- Lilly, J. Robert, Francis T. Cullen and Richard A. Ball. 2007. *Criminological Theory: Context and consequences*, (4t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Ltd.
- Liska, Allen E. and Steven F. Messner. 1999. *Perspectives on crime and deviance*, (3rd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Lowenkamp, Christopher T., Francis T. Cullen and Travis C. Pratt. 2003. "Replicating Sampsons and Grove's test of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Revisiting a criminological classic."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0: 351-373.
- Markowitz, Fred E. and Richard Felson. 1998. "Social-demographic attitudes and violence." *Criminology* 36(1): 117-138.

- Markowitz, Fred E., Paul E. Bellair, Allen E. Liska and Jianhong Liu. 2001. "Extending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Model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cohesion, disorder and fear." *Criminology* 39(2): 293-320.
- Miethe, Terance D. and David McDowall. 1993. "Contextual effects in models of criminal victimization." *Social Forces* 71(3): 741-759.
- Miethe, Terance D. and Robert F. Meier. 1994. *Crime and its social context: Toward an integrated theory of offenders, victims, and situations*.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Morenoff, Jeffrey D., Robert J. Sampson and Stephen W. Raudenbush. 2001. "Neighborhood inequality, collective efficacy, and the spatial dynamics of urban violence." *Criminology* 39(3): 517-559.
- Pattillo, Mary E. 1998. "Sweet mothers and gangbangers: Managing crime in a black middle-class neighborhood." *Social Forces* 76(3): 747-774.
- Pfohl, Stephen J. 1985. *Images of deviance and social control*. New York: McGraw-Hill.
- Pratt, Travis and Francis Cullen. 2005. "Assessing the relative effects of macro-level predictors of crime: A meta-analysis." pp. 373-450. in Micheal Tonry(ed.), *Crime and Justice: A review of research*, Volume 3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ice, Kennon J. and William R. Smith. 2002. "Sociological models of automotive theft: Integrating routine activity and social disorganization approach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9(3): 304-336.
- Sampson, Robert J. 2004. "Neighbourhood and community: Collective efficacy and community safety." *New Economy* 106-113.
- Sampson, Robert J. 2006. "Collective efficacy theory: Lessons learned and directions for future inquiry." pp. 149-167. in Francis T. Cullen, John Paul Wright and Kristie R. Blevis(eds.), *Taking stock: The status of criminological theory*.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Sampson, Robert J. and Janet L. Lauritsen. 1990. "Deviant Lifestyles, Proximity to Crime, and the Offender-Victim Link in Personal Violenc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7: 110-139.
- Sampson, Robert J. and W. Byron Groves. 1989. "Community structure and crime: Testing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774-802.
- Sampson, Robert J., Jeffrey D. Morenoff and Felton Earls. 1999. "Beyond social capital: Spatial dynamics of collective efficacy for childr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4(5): 633-660.
- Sampson, Robert J. and John D. Wooldredge. 1987. "Linking the micro-level and macro-level dimensions of lifestyle-routine activity and opportunity models of predatory victimization."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3(4): 371-393.
- Sampson, Robert J. and Stephen W. Raudenbush. 1999. "Systemic social observation of public spaces: A new look at disorder in urban neighborhood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 603-651.
- Sampson, Robert J., Jeffrey D. Morenoff and Thomas Gannon-Rowley. 2002. "Assessing 'neighborhood effects': Social processes and new directions in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ology* 28: 443-478.
- Sampson, Robert J., Stephen W. Raudenbush and Felton Earls.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 918-924.
- Simcha-Fagan, Ora and Joseph E. Schwartz. 1986. "Neighborhood and delinquency: An assessment of contextual effects." *Criminology* 24(4): 667-703.
- Skogan, Wesley G. 1990. *Disorder and decline: Crime and the spiral of decay in american neighborhood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mith, Douglas A. and G. Roger Jarjoura. 1989. "Household characteristics, neighborhood compositions and victimization risk." *Social Forces* 68: 621-640.

- Stephoe, Andrew D. and Pamela J. Feldman. 2010. "Neighborhood problems as sources of chronic stress: Development of a measure of neighborhood problems and associations with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23: 177-185.
- Taylor, Ralph. 2001. *Breaking away from broken windows: Baltimore neighborhoods and the nationwide fight against crime, grime, fear, and decline*.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 Triplett, Ruth A., Randy R. Gainy and Ivan Y. Sun. 2003. "Institutional strength, social control and neighborhood crime rates." *Theoretical Criminology* 7: 439-467.
- Wacquant, Loïc. 1999. *Les prisons de la misère*. 류재화 옮김. 2010. 『가난을 엄벌하다』 . 서울: 시사IN북.
- Wilson, James Q. and George L. Kelling. 1982. "The police and neighborhood safety: Broken windows." *The Atlantic Monthly* 127: 29-38.
- Xu, Yili, Mora L. Fiedler and Karl H. Flaming. 2005. "Discovering the impact of community policing: The broken windows thesis, collective efficacy and citizens' judgment."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6: 147-186.
- Yang, Sue-Ming. 2010. "Assessing the spatial-temporal relationship between disorder and violence."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26: 139-163.

Social Ecology Perspectives on Victimization in Korean Cities

Seong-Hoon, PARK*, Joon-Ho, KIM**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the complex relationship among social disorganization, collective efficacy, disorder and victimization in an urban setting. We have use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ith ‘2008 Korean Crime Victimization Survey(KCVS)’ data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South Korean in the big cities to investigate the rate of hidden crimes, fear of crime and diverse measures of neighborhood factors such as SES, residential instability, types of dwelling house, collective efficacy, social and physical disorder.

Findings indicate that firstl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hood factors showed more explicit effects on the household victimization, rather than the personal victimization. Second, social cohesion showed strong negative relationship to residential instability and participation also had an negative effect on disorder. The apartment rate in neighborhoods had only negative effect on household victimization. Third, in terms of the difference conditioned by SES, neighborhoods with lower SES are more likely to be influenced by factors than those with higher 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approaches of social ecology such as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systematic theory, collective efficacy theory and disorder theory are more likely to be applied to the neighborhoods with lower SES.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orea University

- ❖ Key words : victimization,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collective efficacy, disorder, apartmental culture, structural model invariance across the groups